

## 『韓兵使實記』에 반영된 韓範錫의 신묘(1711)통신사행 연구\*

한 태 문\*\*

1. 머리말
2. 한범석의 삶과 『韓兵使實記』의 구성
3. 신묘(1711)통신사의 파견과 한범석의 참여
4. 「奉別日本行詩」의 특징
5. 『隨槎日錄』의 형식과 내용
6.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韓兵使實記』에 수록된 신묘통신사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한범석의 신묘통신사행을 살핀 것이다.

‘尙武’의 家風을 이어받아 武官이 된 한범석은 잇달아 燕行使(1710)와 通信使(1711)에 참여한 뒤 두루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역임할 정도로 조정의 신임을 얻었다. 『한병사실기』는 한범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묘통신사와 관련한 자료로는 전별시를 모은 「奉別日本行詩」와 한범석이 지은 사행록인 『隨槎日錄』이 있다.

신묘통신사는 德川家宣이 江戶 막부의 6대 장군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1711년 일본에 파견되었다. 한범석은 연행사 선발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다, 시문창작의 능력 때문에 正使軍官으로 선발되어 통신사행

\* 이 논문은 2019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hantm@pusan.ac.kr)

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범석을 전별하는 16인의 송별시 16수를 모은 「奉別日本行詩」는 대체로 칠언율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적임자로 발탁된 데 대한 칭송과 기대, 바닷길 노정에 대한 염려와 이별의 아쉬움 및 무사귀환에 대한 바람을 내용에 담고 있었다.

『隨槎日錄』은 ‘일기’와 공문서가 포함된 ‘雜文’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기는 부산에서 해신제를 지낸 6월 21일부터 江戶에서 머문 11월 15일까지만 기록한 불완전한 사행록이다. 하지만 바닷길 노정, 육로 노정, 江戶 체류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서술형식을 유지하였고, 다른 신묘통신사 사행록에서 볼 수 없는 武官이 지닌 관심사 및 다양한 문화교류의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병사실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통신사행에서의 한범석의 활약상은 물론, 『隨槎日錄』을 통해 기존의 사행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묘통신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주요어: 한범석, 한병사실기, 수사일록, 봉별일본행시, 신묘통신사

## 1. 머리말

2017년 10월 30일,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정부 간이 아닌 양국의 두 민간단체(한국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가 공동 신청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오늘날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진 한일 양국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1)</sup> 그것은 전쟁을 치른 양국이 교류를 통해 평화를 구축한

---

1)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하여는 2018년 부산문화재단에서 펴낸 백서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2006일의 기록』과 도록인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한국판』을 참조.

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전 세계가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크게 ‘외교기록’, ‘여정의 기록’, ‘문화교류의 기록’ 등으로 나뉘어진다.<sup>2)</sup> 그 가운데 ‘여정의 기록’에는 丁未(1607)통신사 부사 慶暹의 『慶七松海槎錄』을 비롯하여 辛未(1811)통신사 군관 柳相弼의 『東槎錄』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통신사 사행록 총 33종이 등재목록에 올랐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소장되고 그동안 연구자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자료만을 대상 목록에 올린다.”는 선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sup>3)</sup>

따라서 개인 소장이거나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행록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신묘(1711)통신사행에 正使軍官으로 참여한 韓範錫의 사행록 『隨槎日錄』이다. 한범석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속에 庶子로 잘못 전하고 있지만, 진주의 향토지에 증조부 韓夢三과 더불어 ‘나라를 위해 이름을 남긴 사람’으로 수록될 정도로 진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sup>4)</sup>

한범석의 『수사일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5년 한범석의 후손인 淸州韓氏 文靖公派 兵使公 宗中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韓兵使實記』라

2) ‘외교기록’은 통신사 왕래를 위해 양국의 국가기관이 작성한 공식문서 및 외교문서를, ‘여정의 기록’은 노정을 오가는 동안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남긴 기록을, ‘문화교류의 기록’은 상호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시문과 서화 등을 포함한다. 신청서와 등재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백서 별지와 『조선통신사 UNESCO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기념자료집』(부산문화재단, 2017)을 참조할 것.

3) 한태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등재 과정과 현황」, 『향도부산』 36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63쪽.

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이트(<https://gubi.aks.ac.kr>) 참조.; 『내고장의 傳統』, 진주시, 1986, 317~318쪽.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용 또는 호랑이가 입에 들어오는 꿈을 꾸 아버지과 관계하여 낳은 자식이 한범석이며, 지혜로 정실 소생의 이복 형들을 자기 어머니의 상주 노릇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지만 한범석의 용맹과 지혜, 영웅으로서의 비범성을 믿는 지역민의 신뢰와 소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내 고장의 傳統』에는 한범석의 燕行使 참여 행적만 있고, 通信使 참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통신사행을 기록한 『한병사실기』가 발간된 지 무려 24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진주시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정 필요하다.

는 책으로 발간하면서부터이다. 이 책에는 그의 일기체 사행록인 『수사일록』을 비롯하여 영조의 교서와 賜祭文, 친지와 벗이 남긴 각종 別章·제문·輓詞 및 家狀·신도비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sup>5)</sup>

한범석에 대한 학술적 조명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가 ‘兵使公 韓範錫의 생애와 활동’이란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가 최초이다.<sup>6)</sup> 그의 생애와 활동 전반을 다룬 이 학술대회에서 통신사행과 관련한 것은 『수사일록』을 중심으로 그의 일본인식을 살핀 정영실·장원철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사일록』을 다루면서도 <日本國王敎領客使文> 등 뒤에 첨부된 공식 문서와 『한범사실기』에 수록된 「奉別日本行詩」를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한범석의 신묘통신사행을 온전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들 자료까지 포함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그동안 신묘(1711)통신사행에서 산출된 ‘필담창화집’과 ‘詩卷’, 그리고 사행록 속의 驢章 등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sup>7)</sup> 본 연구는 그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범사실기』에 반영된 한범석의 신묘통신사행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5) 한만준, 『韓兵使實記』, 함림인쇄사, 1995. 이후 한범석의 후손들은 집안에 전하는 각종 고문서 1,000점을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에 영구 기탁하였다(2010.12.23.), 그 중 155건이 「경상대학교 소장 청구한씨 병사공파 고문서」란 이름으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531호로 지정되었다(2013.1.3.).

6)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개최된 학술대회(2014.5.23.)에서는 「병사 한범석의 가세와 생평」(허권수), 「병사공 한범석의 대일본 의식」(정영실·장원철), 「한범석 교지의 역사적 가치」(김학수), 「한범석의 청나라 파견과 그 의미」(김동석), 「조선시대 지방수령과 목민관으로서의 한범석」(이상훈), 「무신 한범석의 공훈과 업적」(신윤희) 등의 개별발표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남명학연구』 43집(남명학연구소, 2014)에 수록되었다.

7) 한태문, 「1711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檉客通簡集』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44집, 동양한문학회, 2016, 389~417쪽; 「相國寺 慈照院 소장 『韓客詞章』 연구」, 『일어일문학』 42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조선 후기 통신사의 驢章 연구-『遼窩府君日本使行時驢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 2. 한범석의 삶과 『韓兵使實記』의 구성

### 1) 韓範錫(1672~1743)의 삶<sup>8)</sup>

한범석은 1672년 11월 25일, 진주 동쪽 丁樹里에서 五衛都摠府都事와 茂長縣監 등을 역임한 韓榮世와 李義謙의 딸 全義 李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청주한씨의 진주 入鄕은 한범석의 6대조인 韓承利가 연산군의 난 정을 피해 낙향하면서 이루어졌고<sup>9)</sup>, 이후 韓汝哲-韓誠-韓夢參을 거치면서 진주에서 ‘문학’과 ‘덕행’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한몽삼의 손자이자 한범석의 아버지 代인 ‘世’자부터 ‘應’자 이름을 지닌 4代 동안은 무려 8명이나 무과에 합격할 정도로 가풍이 ‘尙武’로 바뀌었다.<sup>10)</sup> 아버지 형제로부터 비롯된 ‘尙武’의 가풍은 자연스레 한범석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엿매이지 않는 뜻을 지녀 차가운 창문 글 읽는 등 불 아래 머리를 구부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sup>11)</sup>라며 무과 응시를 원하는 큰아버지 韓翼世의 가르침을 받들어 24세(1695)에 별시 무과에 응시, 병과 제15위로 급제하였다.

이후 宣傳官(1699), 訓練院主簿(1702), 都摠府都事(1703), 河東縣監(1704), 備邊司 郎官·訓練院主簿(1710) 등을 역임한 한범석은 1710년 역관 崔奎와 함께 동지겸사은사인 정사 鄭載崙, 부사 朴權, 서장관 洪禹寧 등에 앞서 선발대로 숙종의 咨文을 가지고 청나라를 다녀왔다. 그리고 이듬해인 1711년에는 정사 趙泰億, 부사 任守幹, 종사관 李邦彦 등과 함께 통신사행에 正使軍官으로 참여했다.

8) 『한병사실기』에는 손자 韓應復이 쓴 〈副摠管公家狀〉을 비롯하여 苞山 郭鍾錫이 쓴 〈嘉善大夫行龍虎營別將都摠府副摠管兵馬水軍節度使韓公神道碑銘〉, 朴泰茂·崔東旭 등이 쓴 「제문」, 鄭纘述·鄭相元 등이 쓴 「挽詞」 등 그의 생애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들과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9) 孫命來, 『昌舍集』 권5, 「行狀」, 〈通訓大夫行茂長縣監韓公行狀〉, “五代祖司直公諱承利 當昏朝 避地于晉 自號遜庵處士 晉之有韓始此”.

10) 무과합격자 8명의 이름은 韓翼世·韓榮世·韓弼世·韓泰世 / 韓範錫·韓宇錫 / 韓成 / 韓應益 등이고, 韓時晦의 사위 成樞까지 합치면 9명이나 된다. ‘好文’에서 ‘尙武’로의 변화 일인을 ‘인조반정 이후 大北의 패망과 남명학파의 쇠락, 갑술환국 이후 남인의 정치적 열락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김학수, 앞의 논문, 64~66쪽.

11) 韓應復, 〈副摠管公家狀〉, “有不羈之志 非頰首於寒窓讀書燈者”.

한범석은 이후 장흥도호부사(1717), 경상좌도수군절도사(1724), 전라도 방어사겸제주목사(1725), 회령도호부사(1728), 함경남도병마절도사(1729), 경상우도병마절도사(1733), 경기수군절도사겸삼도통어사(1735), 회령도호부사(1741) 등 중앙의 西班 요직은 물론 10여 개에 이르는 고을의 수령과 9 개에 이르는 兵·水營의 兵使 또는 水使를 역임했다.<sup>12)</sup> 벼슬한 지 26년 만에 종2품 嘉善大夫에 오를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한범석은 1742년 총융청 중군을 끝으로 사직한 뒤 1743년 6월 8일 고향집에서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許錠의 딸 盆城 許氏와 결혼하여 伯瑗과 馱 두 아들을 두었고, 측실과의 사이에서 猷와 馱 두 아들과 許鏞에게 출가한 딸 하나를 두었다.

## 2) 『한병사실기』의 구성

1995년 한범석의 후손들에 의해 발간된 ‘한병사실기’는 크게 『韓兵使實記』와 『晚晤遺事』로 이루어져 있다. 『한병사실기』는 앞서 밝힌 것처럼 한범석과 관련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고, 『만오유사』는 韓萬俊의 <高祖考宣略部長晚晤府君家狀>(1979), 崔寅巒의 <墓碣銘>(1980), 재종숙 韓鎭行을 비롯한 40명의 <挽章>(1920), 한만준의 <跋>(1995) 등 韓斗源(1842~1920)과 관련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한두원은 자가 元七, 자호가 晚晤인 한범석의 6대손이다. 그는 1869년 두 동생 奎源·商源과 함께 武科에 올라 宣略部長으로 5년 동안 지내다가 벼슬살이의 암담함을 경험하고 귀향한 후 육영사업에 힘써 ‘晉西의 碩德’으로 칭송받은 인물이다.<sup>13)</sup> ‘한병사실기’에 뜬금없이 『만오유사』가 함께 수록된 것은 한두원이 모친의 삼년상 중이었던 1877년에 6대祖인 한범석의 실기를 직접 필사한 공로를 후손들이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오유사』를 제외한 『한병사실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12) 이는 <家狀>과 김학수의 앞의 논문 74~75쪽에 수록된 ‘〈표2〉 한범석 인사발령 교지 현황’과 ‘〈표3〉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한범석의 인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양 기록 사이에 차이도 나타난다.

13) 『韓兵使實記』, 『晚晤遺事』, <挽章>, “汾西碩德數公先”(張極元).

『한병사실기』의 책머리에는 영조가 한범석에게 ‘경기도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를 제수하면서 내린 <교서>(1735.1.26.)와 영조가 그의 제삿날에 대사성 申思健이 지은 것을 예조정랑 尹學輔를 보내어 바친 <賜祭文>(1745.4.4.)이 놓여 있다. 그리고 「詩」·「狀啓」·「日記」·「日記跋」 등으로 이루어진 권1, 「부록」·「제문」·「輓詞」·「副總管公家狀」·「副總管公神道碑」·「實記跋」로 이루어진 권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은 하운채의 「日記跋」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범석이 지은 것이고, 권2는 다른 사람들이 한범석을 위해 지은 것을 모은 것이다. 『한병사실기』의 구성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봉별일본행시」·「제문」·「만사」는 지은이 이름을 적되, 실기에 드러난 관직이나 가족관계를 괄호 속에 넣어 정리하였다.

<표 1> 『한병사실기』의 구성

教 書			
賜 祭 文			
권1	詩	①<奉和送酒韻-隨槎時>(7絶 1首), ②<端午日射鵠韻-在北兵營時>(7絶 2수), ③<通判與諸生遊償柳亭送廚傳韻>(7絶 1수), ④<寄西溪朴上舍>(5律 1수), ⑤<杏花韻>(7絶 1수)	
	狀啓	①<單使赴燕時>(庚寅十二月初二日), ②<到義州報狀> 庚寅十二月二十二日	
	日記	「通信使隨行時」(辛卯六月)	
	日記跋(河潤采)		
권2	附錄	「赴燕別章」	趙儻(7을 2수), 李夢商(7을 1수), 柳澹(5絶 1수)
		「奉別日本行詩」	韓箕錫(弟), 韓天寶(從兄), 韓德元(再從兄), 韓家錫·韓永錫(再從弟), 韓伯琦(堂姪), 許渾(甥姪), 南國賓, 韓相琦(堂姪), 趙棧, 趙進玉(戚祖), 柳世彰, 趙澤, 李相益(이상 각 7을 1수), 鄭時華(7絶 1수), 李相發(5을 1수), 韓箕憲(후손, 7를 5수)
	祭文	「襄禮時」	朴泰茂(進士), 崔東旭, 姜紀, 鄭埜(首陽), 河命祥(縣監), 許鎰(孫婿), 李廷蕃(從姪), 韓成(軍수, 조카), 韓章世(再從叔, 同知), 韓圭錫(三從弟), 姜元迪(僉知), 河大淵(軍수)
		「小祥時」	崔東旭, 李廷芳(외증질), 河命祥(현감), 許예(表侄), 河季崙(戚姪), 許金翼(表從孫), 韓應濟(從孫),

輓詞	鄭纘述(訓練大將), 鄭相元, 鄭相琦, 洪德望(慶尙右道兵馬使), 鄭栻(武夷山人), 李世堃(中表弟), 孫秀大(右兵營 虞候), 李台望(中表侄, 縣監), 姜始熙(戚弟), 柳完瑞, 柳完基, 崔東旭, 裴胤性(進士), 許轅, 河命祥(縣監), 姜紀, 李文命, 河命一(監察), 許愷(內甥), 成大方(表從姪), 鄭相文, 河必清(戚姪, 察訪), 鄭埜, 河景崙, 李廷著(內姪), 李尙堃, 梁夏世(僉知), 許銅, 許鎰(孫婿), 河允中(姻姪), 梁鈺, 李雲瑞, 李聃年, 許익(表從孫), 梁星弼, 許逵(戚姪), 梁星容(戚孫), 李鼎祿, 韓伯愈(再從姪), 韓伯彥(三從姪), 韓章世(再從叔, 同知), 徐命龍,
	〈副都總管公家狀〉(韓應復, 손자)
	〈嘉善大夫行龍虎營別將都總府副總管兵馬水軍節度使韓公神道碑銘〉(郭鍾錫, 1855)
	〈實記跋〉(韓斗源, 후손, 1877.2)

이 가운데 한범석의 신묘통신사행과 직접 관련된 기록은 권1의 시 〈奉和送玉韻〉과 일기 「通信使隨行時」, 그리고 권2의 부록에 수록된 「奉別日本行詩」 등이다.

### 3. 신묘(1711)통신사의 파견과 한범석의 참여

신묘통신사의 파견에 대한 논의는 1710년 4월부터 시작된다. 1709년 5월 1일 德川幕府의 5대 장군 德川綱吉의 뒤를 이어 양자인 德川家宣이 將軍職에 오르자, 江戶 막부는 對馬藩을 통해 1711년 7·8월 사이에 통신사를 파견해 줄 것을 조선 조정에 요청했다. 이에 조선은 1710년 7월 22일에 정사 趙泰億, 부사 任守幹, 종사관 李邦彦 등을 三使로 낙점하고 함께 수행할 원역을 차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711년 5월 12일 호조와 예조의 당상관과 삼사신이 함께 예단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497명이 참여한 신묘통신사는 마침내 5월 15일에 임금께 하직인사를 올린 후 사행길에 올랐다.<sup>14)</sup>

약 20일 만인 6월 6일 부산에 도착한 사행은 다시 1달간 머물다 7월 5일 부산을 떠나 對馬島(7/15)·壹岐島(8/9)·大坂(9/16)·京都(9/28)를 거쳐 10월 18일, 사행의 최종목적지인 江戶에 도착했다. 그리고 11월 1일 德川家宣

14) 한태문, 「조선 후기 통신사의 驢章 연구」,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2012, 285~286쪽.



에게 국서를 전달한 사행은 11월 19일 귀로에 올라 다시 京都(12/4)·大坂(12/9)·壹岐島(1712.2/2)·對馬島(2/10)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2/25)했다. 총 11,490리, 289일에 걸친 기나긴 사행 노정은 3월 9일 임금께 복명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sup>15)</sup>

이 신묘통신사행에 한범석도 正使를 보필하는 5명의 군관 중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세 사신의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구성되어 견문을 넓히거나 일본인과의 문화교류에 주력한 ‘子弟軍官’과는 달리, 군관은 사행의 호위와 관리는 물론 마상재와 함께 활쏘기 재주를 펼치는 등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한범석이 군관으로 선발된 데는 신묘사행 직전인 1710년, 淸로의 파견이 예정되었던 동지겸사은사의 선발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영조는 중국을 다녀 온 그를 “대나무 화살로 명성을 날리고 장수로 뛰어난 재주를 떨쳤으며, 북으로 중국을 정탐하기 위해 홀로 요동 변방으로 역말을 탔다.”며<sup>16)</sup>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통신사행에 참여하는 군관을 선발하면서 시문창작 능력도 따졌던 조선 전기 성종의 예를 고려하면<sup>17)</sup>, 그의 시문창작 능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신묘통신사의 군관 가운데 정사군관 柳濬, 부사군관 趙儻·鄭纘述 등이 일찍이 한범석이 燕行을 떠날 때 이 별시를 짓거나, 또는 그가 죽었을 때 ‘輓詞’를 짓는 등 作詩 능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sup>18)</sup>

15) 노정은 부사 임수간의 『東槎日記』와 압물통사 김현문의 『東槎錄』을 참고하되, 주 내용은 임수간의 기록을 따랐다. 그것은 이들 사행록이 일본에서의 수로 노정을 3,285리로 표기한 것 외에는 한양-부산(1165리/1,055리)의 노정과 일본에서의 육로 노정(1,380리/1,315리)에 대한 계산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수간의 사행록 가운데 10월 15일 이후의 기록은 「日記補」라 하여 사행일지 기록의 임무를 맡은 종사관 이방언의 기록에서 가져왔기에 보다 정확한 기록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 『韓兵使實記』, 「教書」, “竹箭令譽 笠韞奇才 北探燕情 獨乘遼塞之傳”.

17) 『성종실록』, 권100, 성종 10년(1479) 1월 19일, “上曰 今日之選 不可徒取武才 須擇善爲詞章者 以啓”.

18) 『韓兵使實記』, 권2, 「부록」, 〈赴燕別章〉에 의하면 유준은 한범석이 燕行을 떠날 때 “변방의 정세를 잘 살피고 올 것(此行計未少 努力問邊情)”을 당부했고, 조빈도 “돌아올 때 백이와 숙제에게 술 한 잔 권하고 오라(歸時若過西山下 須把椒漿酬二侯)”는 송별시를 남겼다. 또 정몽주의 11대손인 정찬술도 “사신 뗏목 함께 하여 동해를 건넜고 / 병사되어 일찍이

그의 作詩 능력은 앞의 도표에서 보듯 권1, 「시」에 수록된 5題 6首의 시에서 살필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신묘통신사행 때 지은 〈奉和送酒韻〉은 하겸진의 『東詩話』에 수록되기도 했다. 하겸진은 그를 을지문덕·이순신·南衡·정충신·柳赫然 등과 함께 ‘천품이 높아 시를 잘 지은’ 우리나라 장수들의 대표적인 예로, “말씨가 한결같이 온화한 선비와 같아서 또한 숭상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sup>19)</sup> 이외에도 그의 작시 능력은 李相益이 奉別詩에서 “문장 실력 마땅히 일본인들 놀라게 하리(文彩應教漆齒驚)”라는 내용을 남기고 있는 데다, 그가 중국과 일본에 갈 때 많은 시를 지었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미처 채가지 못해 몇 구절만 남았다고 후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 4. 「奉別日本行詩」의 특징

앞서 도표에서 보았듯이 『한명사실기』에는 신묘통신사행을 떠나는 한범석을 송별하는 가족과 지인들의 시를 모은 「奉別日本行詩」가 수록되어 전한다. 흔히 먼 길을 떠나는 이에게 바치는 송별시문을 ‘臚章’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망자에 대한 추도의 정을 담은 글인 ‘誄詞’와 함께 당시 사대부들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글쓰기 능력 중의 하나였다. 특히 국내도 아닌 국외사행에 참여하는 당사자에게 송별시를 전하는 것은 전통적 관례이자 필수요건이었다.<sup>21)</sup>

『한명사실기』에는 앞서 밝혔듯이 한범석이 연행사로 떠날 때 趙儻·李夢商·柳濬 등이 바친 송별시도 「赴燕別章」이란 항목에 전하고 있다. 하지

---

제주에서 사귀었다(星槎共逐扶桑外 閩鉞曾交祖島中)며 함께 신묘통신사행에 참여한 사실을 추억하는 〈輓詞〉를 남기고 있다.

19) 河謙鎮, 『東詩話』, 권2, “吾東武將 有詩文者多 蓋天品高故然 非學而能也…韓總管範錫 日本謝幕府饋酒詩曰…鄭韓則其口氣 一似溫然儒者 亦可尙也”.

20) 『韓兵使實記』 권1, 「詩」, “公單使赴燕之時 隨槎泛海之際 及符符仗森 自多詠志吟景之處 詩軸隨成卷軸 而喪憂連疊收拾無人 以致散失 以只存數句 豈勝痛泣”.

21)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의 臚章 연구-『遼窩府君日本使行時臚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2012, 288쪽.

만 「부연별장」은 작가와 작품의 수에 있어서 「봉별일본행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봉별일본행시」는 〈追次〉라는 제목 아래 수록된 韓箕憲의 시가 ‘辛酉仲夏初吉(1741년 5월 1일)’에 지어진 것이기에 제외하더라도 무려 16명의 작품 16수를 수록하고 있다. 같은 국의 사행일지라도 당시 사람들에게겐 목숨을 건 바닷길 사행에 대한 송별의 마음이 더 지극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봉별일본행시」에 수록된 시의 형식은 칠언절구와 오언율시 각 1수씩을 제외하면 모두 칠언율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작자 중 弟·從兄·再從兄弟·再從弟·堂姪·甥姪 등 가족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도포에 제시된 韓箕錫부터 韓相琦까지의 가족들은 모두 같은 운(聲·征·明·情)을 사용한 칠언율시로 송별회 때 함께 모여 지은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봉별일본행시」에는 먼저 한법석이 적임자로 발탁된 데 대한 칭송과 그의 사행에 대한 기대가 잘 드러난다.

北使燕都又日本 연경으로 사신 갔다 다시 일본으로  
 憐君王事獨賢勞 나랏일로 홀로 고생하는 그대가 애처럽네  
 三山鰈域遙親畬 삼각산이 있는 고국의 고향집은 멀어지고  
 萬斛龍驤劈怒濤 만곡들이 큰 배는 성난 파도 가르네  
 風伯故應寧鷁路 풍백은 마땅히 뱃길 편히 열 것이고  
 島夷相顧喚仙曹 섬 오랑캐 서로 돌아보며 신선들을 불러 모으리  
 男兒事業當如是 대장부의 할 일 마땅히 이와 같을지니  
 要使荊人識趙毛 초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趙勝과 毛遂를 알게 하라

趙稜은 봉별시의 首聯에서부터 연행사행에 선발대로 발탁되어 임무를 마치자마자 다시 통신사행의 수행원으로 발탁된 한법석의 능력과 충정을 높이 기린다. 이처럼 「봉별일본행시」에는 대체로 한법석이 사행의 적임자로 발탁된 것을 칭송함과 동시에 그가 양국 사행에 모두 참여하게 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곧 “일 마치고 겨우 하늘 북쪽길에서 돌아오자 / 사신 따라 다시 남쪽으로 떠나네(幹事纔回天北路 隨槎更向日南征)”(韓伯琦)·“조서 받들고 연경에서 돌아와 / 사신 따라 이제 바닷길로 떠

나네(奉詔才還燕塞役 隨槎今發海途征)(南國賓) 등이 그것이다.

額聯에서는 고향을 등지고 성난 파도를 가르며 떠나야 하는 험난한 사행 노정을 그린다. 그리고 頸聯에서는 바람신 풍백조차 援軍이 되고 왜인들도 기뻐하며 맞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넨다. 끝으로 尾聯에서는 대장부의 사업인 사행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趙勝’과 ‘毛遂’가 조선에 있음을 알게 하라며 사행에서의 활약을 기대한다.

흔히 ‘平原君’으로 불리는 조승은 趙나라 惠文王의 동생이자 세 차례나 재상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선비를 후대하여 賓客이 수천에 이른 것으로 유명하다.<sup>22)</sup> 모수 역시 그 빈객 중의 한 사람으로 秦이 趙의 도성인 邯鄲을 포위하자, 조정에서 조승을 楚로 보내 합종을 꾀할 때 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모수는 처음 조승이 동행할 식객에 뽑히지 못했으나 적극 자원하여 동행한 뒤, 지지부진한 협상을 단칼에 해결하였다. 이후 모수는 ‘사신을 도와 제대로 임무를 완수한 인물’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봉별일본행시』에는 유달리 ‘조승-모수’의 고사가 많이 등장한다. 곧 “평원군 문하에서 이름을 알아주니(平原門下荷知名)(韓箕錫) · “모수는 문하에서 천거됨을 기다리지 않고도 / 능히 조승의 초나라 원정 함께 했네(不待毛公門下薦 能俱趙勝楚南征)(韓永錫) · “평원군의 막하에서 송곳 먼저 드러나니 / 초나라에 모수가 있음을 전대할 때 알 것이네(平原幕裏 錐先脫 專對方知趙有毛)(趙澤) 등이 그것이다. 봉별시의 작가들은 정사 조태역을 조승에, 한범석을 모수에 비겨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란 셈이다.<sup>23)</sup>

봉별시의 특성상 중국과는 다른 바닷길 노정에 대한 염려와 이별의 아쉬움, 그리고 무사귀환에 대한 바람도 잘 드러난다.

22) 『史記』卷76, 「平原君列傳」, “平原君趙勝者 趙之諸公子也 諸子中勝最賢 喜賓客 賓客蓋至者數千人 平原君相趙惠文王 及孝成王 三去相 三復位”.

23) 제문에서는 韓成이 한범석을 한무제의 명을 받고 大夏에 사신으로 갔던 ‘博望侯 張騫’에 (雖古之典屬博望 無以加矣). 崔東旭이 南越에 가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뒤 南越왕으로부터 황금 천근을 받아 왔다는 前漢의 사신 ‘陸賈’와 한고조가 낙양이 아닌 장안을 수도로 삼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婁敬(劉敬)’에 빗대고 있다(公於是時 陸君妻子).

憐君男子好身名 가여워라 그대, 사내로 몸과 명예 드높아  
 王事勤勞著義聲 사신으로 힘써 일해 의로운 명성 드러났네  
 蕪北纔回星夜駕 북경에서 밤낮없이 수레 몰고 돌아와  
 日南今逐月槎征 해 뜨는 남쪽으로 이제 또 사신 배를 뒤따르네  
 鯨濤云險心猶坦 거친 파도 험하다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하니  
 蠻俗雖殊信已明 오랑캐 풍속 비록 달라도 믿음 이미 뚜렷하네  
 聞道海程遙萬里 듣건대 바닷길 만 리나 멀다하니  
 若爲天末望雲情 하늘 끝에서 구름만 쳐다보는 심정이 어떨할꼬

재종형 韓德元이 지은 봉별시이다. 애써 마음은 편안할 거라 동생을 안  
 심시키면서도 ‘거친 파도’와 ‘만 리’로 대표되는 험난한 바닷길 노정에 대한  
 염려를 숨기지 않는다. 통신사행이 연행사행과 다른 점은 육로뿐 아니라  
 무려 3,285리에 이르는 바닷길 노정도 있다는 점이다. 육로노정에 익숙한  
 조선의 사행원들에게 바닷길은 그야말로 두려움 그 자체였다. 게다가 신묘  
 통신사행 이전에 對馬島로 파견된 癸未(1703)問慰行이 鰲浦에서 난파되어  
 전원이 몰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행을 떠나는 이나 보내는 이 모두 바닷  
 길의 두렵기는 매한가지였다.

하지만 바닷길이 두렵다고 사행을 멈출 수는 없기에 봉별시에서는 “만  
 리 풍랑 응당 쉽게 건널 것이니(萬里風濤應移涉)(韓天賚)· “기상은 멀리 만  
 장의 파도를 능가했네(氣岸遙凌萬丈濤)(趙澤)· “장한 마음 바다를 건너니  
 어찌 만 리의 위험한 파도를 두려워하랴(壯心超海 寧畏萬里之危濤)(韓伯琦)  
 등에서 보듯, 험한 바닷길도 한범석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기  
 를 북돋운다. 나아가 동생 韓箕錫처럼 “푸른 바다 아득하여 만 리나 깊지만  
 / 어린 동생이 형 보내는 이 심정만 하라(蒼海茫茫深萬里 爭如小弟送兄情)  
 며 애뜻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남아의 일신 사업 마땅히 이  
 와 같을지니 / 어찌 그대 보내면서 아녀자 같이 하리(男子一身當若是 送君  
 何作婦人情)(趙進玉)라며 담담한 어조로 무사귀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기  
 도 한다.

## 5. 『隨槎日錄』의 형식과 내용

### 1) 형식상의 특징

한범석의 통신사행록 원본은 6대손 한두원이 정리한 30.2×21.2cm의 필사본 1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와 권수제가 없고 첫 머리에 ‘辛卯六月○日隨槎時’라 적혀 있는 까닭에 그 명칭이 宗中에서 발간한 『한병사실기』에는 「通信使隨行時日記」로, 소장처인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에는 『隨槎日記』로, 정영실·장원철의 논문에서는 「日本使臣日記」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개인일기4』에서는 『隨槎日錄』으로 제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sup>24)</sup> 보고에서는 『한병사실기』의 「通信使隨行時日記」를 참고하되, 『한병사실기』에 수록되기 전 한범석의 사행록 원본을 대상으로 살피기에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隨槎日錄』이란 이름을 따르기로 한다.

필자가 경상대 고문헌도서관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sup>25)</sup>, 한범석의 사행록 원본은 『한병사실기』에 수록된 「통신사수행시일기」에다 <日本國王教領客使文>·<彼我國書改議辨>·<日本國王覆書> 등 3편의 공문서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들 공문서는 당시 사행에 부사로 참여한 임수간의 『동사일기』에도 <日本國王教領客使文>·<日本國王覆書>는 <關白教領客使聞>으로, <彼我國書改議辨>은 <國書請改始末>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전한다.<sup>26)</sup>

<日本國王教領客使文>은 德川家宣이 領客使인 대마도주 平義方에게 보낸 것이다. 조선의 사신이 옛 의식과 다르다고 여기면 ‘예는 마땅함에 따르고 사신은 풍속에 따른다.’는 『예기』의 말에 따라 사신을 깨우쳐가며 일처리를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彼我國書改議辨>은 일본 執政府에서

24) 『한병사실기』, 51쪽; 경상대학교 문천각 고서실 등록번호 KM0774828; 정영실·장원철, 앞의 논문, 31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개인일기4-충청·강원·전라·경남』, 2018, 69~74쪽.

25) 필자는 2019년 8월 29일 자료조사를 위해 한범석의 후손인 한만준 청주한씨 경남종친회장과 경상대 고문헌도서관 이정희 팀장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6) 한범석의 후손들이 『한병사실기』를 발간하면서 일기만 수록하고, 이들 공문서를 덧붙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일기에 공식적인 문서가 함께 수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 까닭으로 보인다.

관백의 뜻을 받들어 대마도주에게 서로 고친 국서를 대마도에서 교환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조선의 사신들이 고친 답서를 받지 않으면 江戸에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日本國王覆書>는 우여곡절 끝에 1712년 2월 12일 대마도에서 받은 ‘擘’을 ‘戢’으로 고친 일본 관백의 답서 내용이다. 원래의 국서 내용 중 ‘有少謝儀’에서 ‘有少’가 빠지고, 끝에 ‘不備’가 빠진 데다 예단물목을 적은 <別幅>도 빠져 있다.<sup>27)</sup>

일반적으로 통신사 사행록은 크게 ①일기, ②시, ③일기+시, ④일기+잡문, ⑤시+잡문, ⑥일기+시+잡문 등으로 구성된다.<sup>28)</sup> 한범석의 「수사일록」은 일기와 잡문으로 된 『東槎錄』을 남긴 압물통사 김현문과 함께 ④에 해당한다. 오로지 시만으로 된 사행록인 『동사록』을 남긴 정사 조태억, 일기와 잡문예다 봉별시까지 포함된 사행록인 『동사일기』를 남긴 부사 임수간과는 구별된다.<sup>29)</sup> 하지만 ‘일기+잡문’의 형식이지만, 일반적인 사행록처럼 첫 머리에 사행 참여 인원을 적은 ‘座目(員役명단)’조차 수록하고 있지 않다. 반면 임수간의 『동사일기』에는 <前後通信使座目>·<辛卯通信使座目>이, 김현문의 『동사록』에도 <三使臣>·<元額總數>·<일본측수행원>·<국서>·<서계>·<別幅>·<朝鮮國禮曹佐郎洪禹道奉書> 등이 본격적인 일기 앞에 서술되고 있다.

게다가 『수사일록』은 부산에서 해신제를 지낸 1711년 6월 21일부터 江戸에서 머물고 있던 11월 15일까지의 일기만을 담고 있다. 이는 같은 일기 형식을 취하지만 예단을 살핀 날(5/12)로부터 귀국 후 부산 도착(2/25)까지를 기록한 김현문, 왕에게 하직인사를 올린 후 서울을 출발한 날(5/15)로부터 귀국 후 부산 도착까지를 기록한 임수간의 사행록과 다르다. 신묘사행

27) 『通航一覽』 제3, 권98, 朝鮮國部 74, 「兩國書并儀物信使御暇等正徳度」, 145쪽. 『통항일람』에는 별목을 <報聘御目錄>이라 적고 있다.

28) 한태문,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6집, 동양한문학회, 2008, 456쪽. ‘잡문’이란 각종 공문(국서·예조의 서계·통신사의 장계)과 개인 편지 및 「見聞錄」 등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29) 『東槎錄』은 조태억의 문집인 『謙齋集』 권6~8에 수록되어 있고, 임수간의 『東槎日記』는 10월 15일의 일기부터 ‘중사관의 기록에서 요점만을 뽑아(從事所錄刪節)’ 정리한 「日記補」를 덧붙이고 있어 사실상 중사관 이방언과의 합작이라 볼 수 있다.

이 11월 19일 江戸를 떠나 귀로에 오른 것을 고려하면 『수사일록』은 다른 사행록에 비해 江戸 체류 기간 중에서도 일부까지만 있고 귀로 노정은 아예 빠진 불완전한 사행록이다.

한범석이 11월 16일 이후의 일기를 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국서 전달로 임무가 끝났다고 여긴 작가의 의식이 개입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회답국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유추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한범석이 원래 귀로까지 포함된 『수사일록』을 남겼지만, 앞서 후손들의 말처럼 급작스런 喪亂 때문에 수습할 사람이 없어 11월 15일 이후의 기록이 분실된 것으로 봄이 옳겠다.

서술상의 특징은 중요한 사건이 없어도 일자를 건너뛰지 않고, “二十八日 晴 留釜山館”이나, “十三日 晴 無事”처럼 간략하게나마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 바닷길 노정에서는 “六月二十一日 晴而風”·“二十三日 陰 霏南風大作”처럼 바람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다가, 육로에 들어서면 출발 시간, 점심 먹는 장소, 숙소, 그리고 里數 등을 적고 있다. 하지만 江戸에 도착해서는 특이 사항이 없을 때는 “二十三日 晴”처럼 날짜와 날씨만을 적는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서술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 내용상의 특징

앞서 밝혔듯이 『수사일록』은 江戸에 도착하여 회답서계를 받기 위해 머물 때까지의 기록만 남아 있는 불완전한 사행록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행록에서 볼 수 없었던 통신사행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도 기록하고 있다. 곧 도일 전 三使를 따라 절영도 관광을 떠났을 때 동생 韓箕錫도 같이 간 사실을 적어 가족들도 관광 동행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또 육지에 내릴 때 三使가 탈 배가 赤間關에서부터 三使를 수행한다는 사실, 大坂 河口에서 통신사가 옮겨 타는 川御座船 1척의 제작 비용이 무려 3만 냥에 이른다는 사실 등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sup>30)</sup>

30) 『수사일록』, 1711년 6월 22일(이하 '6/22'로 표기함). “一行遊賞絶影島 釜山僉使朴仲徵 昌寧縣監閔致龍往從 舍弟箕錫亦從之.”: 9/2, “自赤間關 粧紅船三隻 塗以髹漆飾以金泥 布以錦



물론 『수사일록』에는 이전의 사행록이나 다른 신묘통신사 사행록처럼 對日 인식의 양면성도 드러난다. 곧 對馬島 佐須浦의 풍광을 본 뒤 “절묘한 경치는 또한 그림으로도 전부 표현할 수 없다.”는 감상을 남긴다. 또 大垣에 이르러 “琵琶湖가 수백 리에 가득 차 있고 기름진 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인가가 서로 연이어 있어 이 나라 물력의 부유함은 선박의 이로우뿐만 아니었다.”며 경치와 문물의 번성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다.<sup>31)</sup> 반면,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자 “교활한 짓거리는 마치 폐와 간을 보는 것 같은 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통탄할 일”이라고 개탄한다. 또 일본 여인의 染齒 풍속에 대해 “살결이 백옥같이 희고 얼굴이 매우 예뻐으나 단지 그 물들인 치아가 흠이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sup>32)</sup>

이처럼 『수사일록』은 기존의 사행록이나 다른 신묘통신사 사행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은 물론 흔히 볼 수 없는 내용도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다른 신묘통신사 사행록과 구별되는 『수사일록』만의 내용상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 (1) 武官으로서의 관심사 반영

임수간의 『동사일기』와 김현문의 『동사록』은 각각 부사와 역관의 관점에서 기술된 신묘통신사 사행록이다. 반면, 『수사일록』은 정사군관으로 참여한 한범석의 사행록답게 곳곳에서 武官으로서의 관심사가 잘 드러난다.

그 중 파도에 휩쓸려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閔監察이 다리를 뺏어 잡고 나오게 하였다. 다리를 잡은 이가 겨우 나오자 監관이 내리 눌러 그 뼈가 거의 부서졌고, 밧줄을 낀 양 겨드랑이는 밧줄에 상하여 피가 흘렀다. 비록 그 완력이 남보다 크게 뛰어나기는 하였지만, 몸을 날려 죽음

---

幕 燦爛纈眼 各隨三使 以爲下陸時 移乘之地也.”; 9/15, “製造出一船之費 幾至三萬餘兩”.

31) 『수사일록』, 7/6, “絕境勝致 亦有畫圖之所 未能盡者.”; 10/4, “琵琶湖 彌滿數百里 沃野無際 閭閻相屬 此邦物力之雄富 不獨舟楫之利而已”.

32) 『수사일록』, 8/27, “狡詐之態 如見肺肝 而猶不知愧 可痛.”; 7/19, “肌如玉雪 眉目甚妍 而只欠涅齒”.

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 보는 이들이 장하고 의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33)</sup>

첫 방문지인 對馬島 府中에 도착한 사행은 3일 만에 선창 밖에 매어둔 副使의 卜船이 폭풍우를 만나 파손되는 사고를 겪는다. 위의 글은 이때 배에서 뛰어내린 일본인 2명을 부사 비장 閔濟章이 죽음을 무릅쓰고 구출하는 급박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한범석은 갑판에 놀려 다리뼈가 부러지고 양 겨드랑이가 밧줄에 쓸려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도 사행원을 지키는 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던 민제장의 분투를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낸다. 한범석은 민제장과 같은 무관의 신분이기에 그에 대한 서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핏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신묘통신사 사행록이 “한 배에 탄 35인이 모두 그의 힘으로 생명을 건졌으니, 그 의리와 용기가 참으로 가상했다.”· “민비장의 완력은 참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며 그의 의로운 기상은 더욱 가상하다 할 만하다.”<sup>34)</sup>라고 다소 피상적인 감상 기록을 남긴 것과 대조적이다.

三使는 7월 27일 對馬島에서 이 사실을 적은 장계를 임금에게 올렸다. 8월 21일에야 장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은 외국에 있는 민제장을 국왕친위조직인 別軍職에 임명하였다. 이후 민제장의 무용담은 통신사행에서 두고두고 사행원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sup>35)</sup>

일행 중 일곱 여덟 원역이 먼저 말을 타고 길가의 한 집에 가니 좌우

33) 『수사일록』, 7/22, “其中落波 未出之人 閔垂脚而使之攀出 攀者纒出 船板來壓 幾碎其骨 兩腋挾纜之處 嚙傷流血 雖其膂力 有大過人者 而挺身 犯死所活甚多 觀者 莫不壯而義”.

34) 임수간, 『동사일기』, 7/22, “一船中三十五人 賴以全活 其義勇誠爲可嘉”. ; 김현문, 『동사록』, 7/22, “閔裨之膂力 固過人 其義氣 尤足尙矣”.

35) 『숙종실록』 권50, 숙종 37년(1711) 8/29, “前宣傳官閔濟章 並差別軍職 濟章卽通信使偏裨 手援海船之將覆 故上壯之 有是命”. 계미(1763)통신사가 복명하였을 때 영조는 壹岐島에서 치목이 부러졌을 때 공을 세운 徐有大에게, 옛날 민제장이 배를 구한 전례를 들어 변두리의 兼防禦使를 특별히 제수하기도 했다. 조엄, 『해사일기』, 1764. 7/8, “徐有大以歧島鷗折時效勞 援引閔濟章救船事 特下邊地兼防禦使承傳”. 하지만 민제장은 귀로의 藍島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한다.

저택의 웅장하고 화려함이 처음 들어올 때 본 것보다 몇 배나 되었다. 서까래를 받친 기둥은 모두 구리로 만들었고 담장 안에는 기이한 화초를 줄지어 심었으며, 뜰에는 모두 자갈을 깔았고 대문과 난간은 반드시 무늬 있는 나무로 만들었다. 이날 마상재를 보기 위해 큰 길 담장 안팎으로 거의 一里 정도에 모두 가설 평상을 설치하여 남녀가 그 위에 늘어섰으니 의복의 화려함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 도주는 부인을 거느리고 나와 이를 구경했으니 해가 저물어서야 끝이 났다.<sup>36)</sup>

이는 사행이 바다를 건넌 후 첫 도착지인 對馬島에서 馬上才를 공연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먼저 사행원 7·8명이 말을 타고 도착한 對馬島主의 저택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어 큰길에서 베풀어진 마상재를 대마도주 부부를 비롯해 화려한 의복으로 치장한 일본인들이 지나간 가설 평상 위에서 관람했음을 알려준다. 이 내용은 임수간의 기록에선 아예 볼 수 없고, 김현문은 “도주가 技藝를 청하여 제술관과 사자관 2명, 마상재 2명을 보내고 최상집, 현덕운, 三行 비장 각 1인이 거느리고 갔다가 밤이 깊어서야 파하여 돌아왔다.”고만 적고 있을 뿐이다.<sup>37)</sup> 한범석은 馬上才人 2명을 직접 호위하여 인솔한 데다, 공연을 관람한 당사자였기에 위와 같은 정보를 자세히 알려 줄 수 있었던 것이다.

武官으로서 그의 관심사는 사행의 최종 목적지인 江戶城에 들어서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성문에 들어가니 성가퀴는 겹겹이 높이 솟았고 바닷물을 끌어와 垓子를 만들었다. 성을 쌓는 방법은 큰 돌을 단지 앞면만 다듬고 사면의 모서리를 그대로 두어 다른 돌과 맞물리게 쌓아 단단하기가 철용성 같았다. 대개 江戶는 도읍으로 정한 땅이라 富士山과 日光山으로 鑛山을 삼아

36) 『수사일록』, 7/25, “行中七八員役 騎往街邊一舍 左右第宅之宏侈 又倍入來時所見 戴椽之木皆以熟銅爲之 墻垣之內 列植奇花異草 庭際皆鋪以拳石 門扉軒檻 必以文木爲之 是日爲觀走馬 街墻內外 幾爲馬場 許皆結浮床 男女堵立其上 服飾之盛麗 不可殫記 島主率其內 出臨街樓以觀之 日暮乃罷”.

37) 김현문, 『동사록』, 7/25, “是日島主 請觀我國技藝 卽送製述官兩寫官畫員 及馬才兩人 而崔台玄道以 及三行裨將各一員 領往夜深罷還”.

사오백 리의 평야에 자리했고, 큰 바다로써 동남쪽을 에워쌌다. (중략)  
나는 지난 겨울에 해적의 소식을 탐문하는 일로 외교문서를 지니고 燕京을 다녀왔었다. 대개 이곳의 기상을 살펴보니 웅장하고 모질고 사나운 형상은 연경보다 조금 못하지만, 견고하고 정교한 모습은 더욱 뛰어났다.<sup>38)</sup>

겹겹이 쌓은 성가퀴, 바닷물을 끌어와 만든 해자, 서로 맞물리게 쌓아 빈틈을 허용 않는 성벽 등 국방을 책임진 武官답게 먼저 성의 제도부터 꼼꼼히 살핀다. 게다가 도읍인 江戶는 富士山과 日光山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고, 동남쪽은 넓은 바다가 막아 서 있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가 따로 없다. 바로 한 해 전 중국 사행을 경험한 한범석은 江戶의 모습이 燕京의 웅장함과 사나움엔 미치지 못하지만, 견고하고 정교함은 오히려 뛰어나다는 감상평을 남긴다. 한결같이 “성문을 지났는데 돌로 쌓은 것이 매우 견고했다.”<sup>39)</sup>라고 짧게 서술한 두 사행록의 서술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셈이다.

이외에도 한범석은 武官으로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본 말의 안장과 굴레의 규격이 조선과 크게 다름에 주목하고, 대마도주가 베푸는 宴饗禮에 참여하는 군관과 역관의 先行 문제로 인한 양국의 갈등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또 대마도주가 베푼 연회에서 3명의 서기가 만취한 까닭에 首譯·判事 등이 정사에게 곤장 10대씩을 맞은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sup>40)</sup> 만취사건은 다른 사행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紀律의 준수를 중시하는 무관으로서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자신의 직분상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38) 『수사일록』, 10/18, “入城門 層堞峨峨 引海爲壕 築城之制 以大石只琢前面 四面存其稜角 與他石合置 以築堅牢若鐵城 大抵 江戶設都之地 以富士日光爲鎮 處於四五百里之平野 以大海襟帶東南…余前冬 以探問海賊聲息事 齋咨往還燕京 概審其處 氣像雄壯悍猛之形 小下於燕京 而堅固精巧之態 過之矣”.

39) 임수간, 『동사일기』, 10/18, “再過城門 石築甚牢”; 김현문, 『동사록』, 10/18, “再過城門 石築甚牢”.

40) 『수사일록』, 7/19, “一行員役 皆騎馬 鞍勒之制 大異國俗”; 7/26, “當行宴饗 而以軍官驛官拜禮先後 相爭之故 倭人不許軍官之先 日中不決 至申未倭人始許”; 7/27, “昨日宴饗時 以書記三人 埋沒之故 二首譯三判事一掌務之奴 自正使所捉入 各杖十度”.

간략히 기록하고 만다. 1707년 草梁村 여성과 왜관의 일본 남성 사이에 交姦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당시 조선 여성은 梟首되었지만 일본인 남성은 對馬藩이 처벌하지 않아 매년 논쟁이 거듭되었다. 신묘통신사는 江戶에서 對馬島主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노한 사신들이 막부의 將軍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놀란 대마도주가 재빨리 동의함으로써 '왜인의 潛姦에 대한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현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역관 김현문은 여성의 이름부터 約條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만, 한범석은 "약조를 허락하지 않는 일로 주객이 서로 버렸다."라고만 적고 있다.<sup>41)</sup>

## (2) 다양한 문화교류의 양상 반영

통신사는 일본 막부 將軍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 대일 외교사절단이다. 하지만, 고급 관료에서부터 의원·화원·악공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재능이나 技藝로 당대 조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된 문화사절단이기도 했다. 따라서 통신사행을 매개로 한 양국의 문화교류는 필연적이었는데, 이는 『수사일록』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첫째, 필담과 창화를 통한 문화교류이다.

『수사일록』에 반영된 조선 문사와 일본 문사 간 필담 창화의 흔적을 『동사일기』·『동사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방적인 贈詩·請詩·講書 등을 필담 창화로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기록의 이면에 필담창화의 과정이 생략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하기로 한다.<sup>42)</sup>

41) 『增正交隣志』 권4, 「約條」, 〈三十七年辛卯 信使時定倭人潛姦律〉: 김현문, 『東槎錄』, 11/10, "以昔年甘玉交姦事 自廟堂分付使行 俾定約條 而連日論難 今日始定約條..."; 『수사일록』, 11/10, "以約條不許事 主客相持".

42) 실제로 아래 도표에서 10월 27·28일, 11월 2일에 조선 문사를 만난 것으로 나오는 일본 문사들의 필담창화집인 『班荆集』(木寅亮)·『正徳和韓集』(高玄岱)·『支機閒談』(三宅緝明) 등에는 당시 조선 문사와 필담 및 창화를 한 것으로 나온다.

<표 2> 신묘통신사 사행록 소재 필담·창화의 기록

일시	장소	교류내용	東槎日記	東槎錄	隨槎日錄
7/26	對馬島	접반승 雲壑永集의 차운시에 三使가 화답	○	×	×
		雨森芳洲·松浦霞沼·玄圭가 제술관·서기와 창화	○	○	×
8/10	壹岐島	雨森芳洲 외 3명이 서기와 창화	×	×	○
8/11		雨森芳洲·松浦霞沼 및 제자들이 제술관·서기와 창화	○	×	×
8/13		雲壑永集의 차운시에 三使가 화답	○	×	×
8/19	藍島	雨森芳洲·竹田定·眞神屋亨이 조선 문사와 창화	○	×	○
8/20		증 鐵相이 준 시에 서기가 화답함	○	×	×
8/29	赤間關	雨森芳洲가 雅直·縮往·周南·居敬·醉竹을 데려와 조선 문사와 창화	×	×	○
9/18	大坂	지역시인들이 제술관·서기와 창화	×	×	○
9/19		지역시인들이 제술관·서기와 창화	×	×	○
9/20		지역시인들이 제술관·서기와 창화	×	×	○
9/23		지역시인들이 제술관·서기와 창화	×	×	○
10/1	京都	지역시인 7·8명이 제술관·서기와 창화	×	×	○
10/27	江戶	林信篤·林信充·林信智·木寅亮·高玄岱·平元成이 시를 바침	○	×	×
10/28		高玄岱 등 8인이 다시 음	○	×	×
11/2		儒官 三宅緝明이 贈詩	○	×	×
11/5		新井白石과 온종일 필담(江關筆談)	○	○	×
11/8		別宗祖緣이 <日光山八景圖>를 보이고 정사에 게 講詩	×	○	×
11/13		삼사가 장군의 요청으로 萬壽樓·文祥閣·會心處 등 편액 글씨 3장을 써 줌	×	○	×

도표에서 보듯 『수사일록』은 對馬島·江戶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정지역에서 벌어진 필담과 창화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赤間關·大坂·京都에서의 필담창화는 다른 사행록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기록이다. 對馬島는 도일 후에 머물게 된 첫 지역이고, 江戶는 사행의 최종 목적지이다. 한

범석은 상대적으로 이 두 지역에서 가장 분주했을 正使의 신변 보호가 최우선이었기에 찬찬히 기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일록』에는 사행이 江戸의 本願寺에 머문 이후부터는 ‘전명례’(11/1), ‘장군이 배푸는 연회’(11/3), ‘對馬藩邸에서의 연회’(11/6) 등 대표적인 공식행사의 기록 외에는 “初八日 晴”처럼 날자와 날씨만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양국 문사 간 교류 외에 개인의 문학활동도 기록하고 있다. 大坂을 떠나 淀浦를 향하던 정사 조태억이 폭풍우를 만나 어쩔 수 없이 배 위에서 머문 때가 있었다. 한범석은 “저녁밥과 침구가 도착하지 않아 드디어 선잠을 잤는데, 이날 밤 정사가 절구 10수를 읊었다.”고<sup>43)</sup> 기록하고 있다. 다른 사행록에는 볼 수 없는 이 기록도 正使의 곁을 지키는 군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사가 읊었다는 이 시는 조태억의 문집인 『謙齋集』 권7, 「동사록」에 〈自大坂泛舟泝流述所見走題十絶〉라는 제목의 7언 절구 10수로 수록되어 전한다. 한범석은 『수사일록』을 통해 이 시가 창작된 배경을 제대로 기록으로 남긴 셈이다.

둘째, 한범석과 일본 문사 간 교류이다.

(가) 왜인 문사의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서로 더불어 수작하였다. 그 曆名을 물어보니 ‘貞亨’이라고 대답했다. 그 읽는 것을 보니 소리는 漢音과 유사했지만 말이 매우 지리하였다. 까닭을 물어보니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字音이 없어 단지 방언으로 그 뜻을 풀어서 읽으니 글의 어려움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sup>44)</sup>

(나) 밤에 비전주 士將인 奎鎭軒이라는 자가 자칭 임술년 통신사가 오갈 때 掌供官이었는데, 이제 또 前職으로와서 근무한다고 하였다. 나이는 지금 70이었는데 술통을 마주 놓고 서로 어울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파했다.<sup>45)</sup>

43) 『수사일록』, 9/26, “前後船不相通 正使不進 夕食寢衾不來 遂假寐 是夜正使賦十絶”.

44) 『수사일록』, 8/12, “聽倭文士 讀書之聲 相與酬酌矣 問其曆名 答以貞亨 其讀時聲 近漢音語 甚支蔓 問之則曰 我國本無字音 但以方言 釋其義而讀之 文之難 蓋由於是耳云”.

(㉞)는 壹岐島에서, (㉟)는 牛窓에서 한범석이 지역의 문사들과 직접 만난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모두 다른 사행록에서는 볼 수 없는 비공식적인 교류의 기록이다. 특히 (㉞)는 한범석이 마을을 돌아다니다 오직 『주역』을 읽는 소리만 듣고 일본 문사와 필담을 나눈 내용이다. 책 읽는 소리가 漢音과 유사하되 말이 매우 지리한 까닭을 서로 묻고 답하는 짧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약 50여 년 뒤 燕行使로 참여했던 북학파 지식인들이 애써 골목을 쏘다니며 지역 문사들과 만나던 모습과 닮아 있다. (㉟)는 한범석이 숙소를 찾은 牛窓의 掌供官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노닐 체험을 적고 있다. 무려 30세의 나이 차이를 잇고 새벽까지 노닐 수 있었던 것은 通事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두 문사 간 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필담과 창화 이외의 형식을 통한 문화교류이다.

(㉠) 辰時 후에 원역들과 뒷산에 올랐다. 광대와 악공을 불러서 마을에 나아가 풍악을 울려 원근의 구경꾼들을 즐겁게 하였다.<sup>46)</sup>

(㉡) 잔치 음식은 다른 곳에 비하여 입에 맞는 것이 많았으니 대개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국경이 서로 인접하기 때문에 음식의 품질을 자못 본받아 그러하였다. 날이 저물자 雜戲를 열었는데 기이한 구경거리가 매우 많았다.<sup>47)</sup>

8월 9일 壹岐島에 도착한 사행은 바람 때문에 다음 노정인 藍島로 떠날 수가 없었다. (㉠)는 이틀이 지나서도 떠나지 못하자 한범석이 사행원 가운데 조선의 광대와 악공을 불러 壹岐島民을 위해 공연을 펼친 사실을 적고 있다. 이는 다른 사행록에선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통신사의 문화교류가 공식 행사에서만 펼쳐진 게 아니라, 일본 지역민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도 행해

45) 『수사일록』, 9/11, “夜備前州士將 全鎮軒爲號者 自稱壬戌信使時 爲掌供官 今又以前職 來待 云 年今七十 對樽相和 至曉乃罷”.

46) 『수사일록』, 8/11, “辰後與員役 登後峰 招優人樂工 呈村動樂 俾悅遠近觀光者”.

47) 『수사일록』, 11/6, “饗饌 比他多可口物 馬州與我境 相接故 飲食之節 頗能慕效而然 宴畢及暮 呈雜戲 甚多奇觀”.



진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㉔는 江戸의 對馬藩邸에서 열린 연회에 나온 일본의 음식과 雜戲에 대한 평가이다. 한범석은 먼저 잔치 음식이 입에 맞은 이유를 대마도가 조선의 음식문화를 본받았기 때문이라 여겼다. 당시 동래에는 대마도인이 집단 거주하던 倭館이 있었던 데다, 특히 대마도주가 배편 연회에는 전통적으로 일본식과 조선식의 음식이 번갈아 제공되었기 때문에<sup>48)</sup> 음식문화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잡희도 ‘기이한 구경거리가 많았다.’라고 짧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연회의 교류도 활발히 펼쳐졌음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 6. 맺음말

이상으로 『韓兵使實記』에 반영된 한범석의 신묘통신사행을 그의 삶과 『한병사실기』의 구성, 신묘통신사의 파견과 한범석의 사행 참여, 『隨槎日錄』의 형식과 내용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범석의 삶과 『한병사실기』의 구성을 살폈다. ‘尙武’의 家風을 이어받아 武官이 된 한범석은 燕行使(1710)와 通信使(1711)에 참여한 뒤 중앙의 西班 요직과 지방의 수령 및 兵使·水使를 역임할 정도로 조정의 신임을 얻었다. 『한병사실기』는 한범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신묘통신사와 관련된 자료는 전별시를 모은 「奉別日本行詩」와 한범석이 지은 사행록인 『隨槎日錄』이다.

둘째, 신묘(1711)통신사의 파견과 한범석의 사행 참여에 대해 살폈다. 신묘통신사는 德川家宣이 江戸 막부의 6대 장군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1711년 일본에 파견되었다. 한범석은 1710년 연행사 선발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다, 시문창작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正使軍官으로 선발되어 통신사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48) 김상보·장철수, 「조선통신사를 포함한 한일관계에서의 음식문화교류·3」,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13-No5,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8, 453쪽.

셋째, 「奉別日本行詩」의 특징을 살폈다. 한범석을 전별하는 16인의 송별시 16수를 모은 「봉별일본행시」는 대체로 칠언율시로 되어 있고, 적임자로 발탁된 데 대한 칭송과 기대, 바닷길 노정에 대한 염려와 이별의 아쉬움 및 무사귀환에 대한 바람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넷째, 『隨槎日錄』의 형식과 내용을 살폈다. 『수사일록』은 일기와 雜文으로 구성되어었는데, 특히 일기는 부산에서 해신제를 지낸 6월 21일부터 江戶에서 머문 11월 15일까지만 기록한 불완전한 사행록이다. 하지만 바닷길 노정, 육로 노정, 江戶 체류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였고, 다른 신묘통신사 사행록에서 볼 수 없는 武官이 지닌 관심사 및 다양한 문화교류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병사실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통신사행에서의 한범석의 활약상은 물론, 『隨槎日錄』을 통해 기존의 사행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묘통신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병사실기』의 발간을 통해 「奉別日本行詩」와 『隨槎日錄』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처럼, 이를 계기로 당시 사행에 참여했던 다른 사행원 후손들의 관심으로 확대되어 신묘통신사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임수간, 『동사일기』(해행총재IX), 민족문화추진회, 1978.  
조태억, 『謙齋集』, 서울대규장각 소장.  
하겸진, 『東詩話』.  
한범석, 『隨槎日記』, 경상대고문헌도서관 소장  
한만준 편·이창호 역, 『한병사실기』, 한림인쇄사, 1995.

### 2. 논저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兵使公 韓範錫의 生涯와 活動』, 문예원, 2015.  
김동석, 「한범석의 청나라 파견과 그 의미」, 『남명학연구』 43집, 남명학연구소, 2014.  
김상보·장철수, 「조선통신사를 포함한 한일관계에서의 음식문화교류·3」,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13-No5,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8.  
김학수, 「한범석 교지의 역사적 가치」, 『남명학연구』 43집, 남명학연구소, 2014.  
瀬尾維賢 편·기태완 역주, 『七家唱和集/班荊集·支機閒談』, 보고서, 2014.  
박희병·이효원, 『18세기 통신사 필담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신운호, 「무신 한범석의 공훈과 업적」, 『남명학연구』 43집, 남명학연구소, 2014.  
이상훈, 「조선시대 지방수령과 목민관으로서의 한범석」, 『남명학연구』 43집, 남명학연구소, 2014.  
정영실·장원철, 「병사공 한범석의 대일본 의식」, 『남명학연구』 43집, 남명학연구소, 2014.  
진주시, 『내고장의 傳統』, 1986,  
한태문, 「1711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槎客通筒集』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44집, 동양한문학회, 2016.  
\_\_\_\_\_, 「相國寺 慈照院 소장 『韓客詞章』 연구」, 『일어일문학』 42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_\_\_\_\_, 「조선후기 통신사의 臚章 연구-『遼窩府君日本使行時臚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허권수, 「병사 한범석의 가세와 생평」, 『남명학연구』 43집, 남명학연구소, 2014.

〈Abstract〉

## A Study on the Han Beom-Seok's Shinmyo(1711) Tongshinsahaeng Reflected in *Hanbyeongsasilgi*

Han, Tai-Moon

This article researched Han Beom-seok's Shinmyo(1711) Tongshinsahaeng, which was included in the *Hanbyeongsasilgi* though related data.

Han Beom-seok, who took over the family tradition of pursue the policy of militarism and became a military officer, gained the trust of government to the extent that he served in major central and provincial posts after participating in Yeonhaengsa(1710) and Tongshinsa(1711). *Hanbyeongsasilgi* contains various materials related to Han Beom-seok, among them *Bongbyeolilbonhaengsi* which collect the farewell poems, and *Susailok*, a diplomatic record created by Han Beom-seok are related to Shinmyotongshinsahaeng.

Shinmyotongshinsahaeng was dispatched to Japan in 1711 to celebrate Tokugawa-Ienobu, becoming the sixth shogun of Edo Bakufu. Han Beom-seok successfully completed the mission of the advance party of Joseon missions and was able to create poems, so he was selected as a military officer for political affairs and participated in Tongshinsahaeng,

*Bongbyeolilbonhaengsi* which collected 16 farewell poems for Han Beom-seok, are generally created with 7 words rhythm format. It included praise and expectation for being selected as the right person for the job, concern about the sea route, a regret of parting and wish for safe return.

*Susailrok* consists of diaries and official documents. In particular, the diary is an incomplete diplomatic record that records only from June 21, when a sacrifice for the sea god was held in Busan, to November 15, when he stayed in Edo. However, it maintained a certain narrative format depending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such as the sea route, land

route, and stay in Edo, reflecting the interests of the military officials and the aspects of various cultural exchanges that are not seen in other diplomatic records.

Like this, *Hanbyeongsasilgi* is a valuable data that provides a variety of information on the Shinmyotongshinsa, which was not seen in the existing diplomatic records, through *Susailrok*, as well as the performance of Han Beom-Seok in Tongshinsa, which has not been known well.

\* Key Words: Han Beom-Seok, *Hanbyeongsasilgi*, *Susailrok*, *Bongbyeolilbonhaengsi*, Shinmyo Tongshinsa.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0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0일

